

학부제—그 장점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민홍식



권옥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가 92학년도에 전기·전자·제어공학군이란 하나의 입학모집단위로 신입생 215명을 모집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유사학과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내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이하 전기 3과)가 하나의 공학부(이하 전기공학부)로 탄생되면서 서울대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권장아래 학부제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학부제를 제일 먼저 시도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학부제를 추진하면서 생긴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학부제를 추진하는 다른 대학들이나 학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학부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신문지상 등을 통하여 이미 여러번 논의된 바 있는 학부제의 장단점을 다시 정리해 보고, 끝으로 학부제 추진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1. 학부제 추진 배경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들은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운

영도 세분된 소규모 학과중심체제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학과중심체제로 대학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회로부터 어느 특정분야의 인력수요가 많아져 그 분야의 학생증원이 필요하게 될 때, 현재의 대학설치 기준령으로는 기존학과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교육내용은 같으면서 학과명칭만 서로 다른 유사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행정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증원과 함께 필요하게 되는 교수, 행정요원 및 실험기기등을 더 많이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이 소규모 학과별로 분리되어 있는 학과중심체제에서는 학사과정교육이 학과들 사이에 서로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정된 교수정원에서 비슷한 분야의 중복된 교수채용으로 새로운 학문분야의 교수 확보가 어려워 교수인력 역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접분야들 사이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기능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등 소규모 학과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여러 면에서 비능률과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어왔다. 근래에 와서 많은 교수들이 세분된 학과 중심체제의 단점을 인식하고, 유사학문분야의 학과들을 하나의 학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행 학과중심 지원체제 아래에서는 통합으로 생기는 재정 및 인력자원에서의 불이익과 교수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통합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같은 주위 여건때문에 학과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서울대학교의 전기 3과는 대학이란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대학설치기준령이나 학칙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3학과의 대부분 교수들의 지지아래 92학년도부터 서둘러 신입생

을 통합 모집하게 되었다. 1980년 중반부터 첨단기술분야의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체·상공부·공과대학들이 수도권 우수대학에 대한 공학분야의 입학정원 동결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1992학년도부터 서울에서의 입학정원 동결을 풀게 되었다. 이에따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3년 계획으로 입학정원을 2배로 늘리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전기 3과는 2.5배로 늘리기로 하였다. 전기 3과 교수들은 학생정원이 늘어나면서 학생증원에 따라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교수정원을 학과별로 독립해서 채용할 경우 교수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살리기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학과의 규모가 커지면 통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정원증원과 때를 맞춰서 서둘러 통합하게 된 것이다. 신입생을 통합모집하면서 일단 현행제도 아래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까지 당분간 3개의 학과는 법적으로 존속시키면서 통합모집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분과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상대로 신입생의 통합모집은 3과의 실질적인 통합운영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대학당국의 제도적인 뒷받침없이도 통합운영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 3과의 전체교수회의에서 통합운영에 필요한 내규와 세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런대로 큰 말썹없이 잘 운영해 오고 있다.

사실 전기 3과의 통합이 학생증원때문에 서둘러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번 통합에서 누락된 컴퓨터공학과와 함께(이하 전기 4과) 전기 4과에서는 이미 통합을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1984년부터 전기 4과 공동세미나를 매주 열어서 학사과정 및 대학원생들이 듣도록 하였고, 하계 계속교육도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86년부터는 전기 4과의 학사과정 공통 필수과목들의 교과목 번호를 통일하는 등 그동안 통합에 필요한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이와같은 통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음 장부터는 위와같은 배경아래 전기공학부를 탄생시키면서 분석해 본 학부제의 여러가지 장단점, 그리고 학부제를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실제로 생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한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이와같은 내용은 모두 대학원중심 대학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학생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2 학부제의 장단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기계열 학과로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있다. 선진국의 우수 대학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들 학과들은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이란 하나의 학과로 되어 있다. 물론 유럽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세분되어 있는 곳도 있다. 전공분야를 세분된 학과로 운영하던 통합하여 운영하던 모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각 관련대학의 여건에 따라 유사학과들의 통합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전기 3과를 통합하면서 통합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내용을 적은 것이다.

먼저 유사학과 통합이 가져오는 장점으로 생각되는 사항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과의 세분화로 인하여 대학입시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지나친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학과중심체제의 입시과정에서는 세분된 학과들의 차이점을 자세히 모르고 수험생들이 학과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입학한 후 본인이 입학한 학과보다 자기적성에 더 잘 맞는 분야를 발견하더라도, 그 학과로의 전과와 대학원 진학이 현재의 학과중심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부제로 통합함으로써 이와같은 문제점은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공학부 입학생의 과반수 정도가 입학시험 때의 면접에서 장래의 전공분야로 robotics를 선호하고 있으나 4년 후 대학원 진학시에 살펴보면 robotics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훨씬 감소하고 있다.

- 2) 체계적인 수강으로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하고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세분된 학과체제에서는 교과과정의 내용과 운용방법이 학과들 사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므로, 학과명칭에 따라서 학사과정의 교과목들이 더욱 세분화되고, 학과마다 취득해야 하는 전공학점수가 과다하게 정해져 있어 학생들은 해당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세분화된 전공과목들을 별 수 없이 많이 수강해야 한다. 이들 전공과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상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들이 인접분야의 과목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수강을 하고싶어도, 강의시간표 작성시 학과 사이의 상호협의를 없어서 체계적인 수강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 3) 교과과정이 통합되면서 유사 교과목의

중복개설이 없어지고, 교양 및 전공기초과목에 강의조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대형강의화함으로써 교수에게 주어지는 학사과정에서의 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로써 교수들은 전공분야 강의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고, 강의부담의 경감으로 전공분야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 4) 교수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고, 기존학과와 학문영역에 연계되어 있는 인접분야로의 연구활동이 확대되어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즉 인접분야간의 연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회 변화를 유연성 있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세분된 학과체제에서는 학사과정에 필요한 교수가 우선적으로 채용되므로 기초전공분야의 교수수가 과다하게 많아지는 반면, 새로운 학문 분야와 기존학과들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인접 중요분야의 교수채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 5) 전공이 유사한 교수들 사이의 접촉이 많아지고 연구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 분위기가 생겨남으로써 연구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연구에 대한 정보의 상호 교환과 협동연구에 의한 학문발진이 활성화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같은 과목을 두명이상의 교수가 강의하게 되고 강의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비교평가가 되면서, 교수들의 강의 준비가 더욱 충실해지게 된다.
- 6) 사무행정의 통합으로 각 사무직원이 맡는 일을 더욱 세분화 및 전문화시킬 수 있어 사무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의 중복된 배정을 줄일 수

있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며, 사무실을 통합함으로써 공간 이용도도 높일 수 있다.

- 7) 학부내의 다양한 전공분야를 학생들이 입의로 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맞춰서 졸업생 취업이 분야별로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세분된 특정학과의 명칭 때문에 취업시 겪게 되는 기회 감소등의 불이익도 줄어들게 된다.
 - 8) 각 학과가 관장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소(서울대 전기 3과의 경우, 반도체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를 연계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준 높은 교육 및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 9) 시설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경비가 절감되고, 이로써 대규모 시설의 유지가 가능해진다.
 - 10)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교수, 학생 및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일류 대학들과 대등한 위치에서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예로서 미국의 MIT 공대의 전기 및 컴퓨터공학과에는 교수 114명이 매년 240~350명의 학사과정 신입생을 받아들인다.
 - 11) 교육 및 연구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산업체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좀 더 조직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정부나 산업체의 기술정책 결정에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금까지 통합시의 장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세분화된 체제로 있을 때의 장점을 알아 본다. 이 경우의 장점이 곧 통합시의 단점이 될 것이다.
- 1)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의 교수 및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특

정분야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쉽다. 또한 특정분야에 국한된 취업이 유리할 수 있다.

- 2) 교수와 학생사이가 가까워지기 쉬우며, 학생지도가 용이하다.
- 3) 학생들 사이의 상호친목이 용이하다.
- 4) 교수들이 학과의 정책결정과 학과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통합시의 장점 중에서 교수의 강의부담 경감효과와는 금방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번의 통합과정에서는 학생정원만 늘어났을 뿐 이에 따른 교수증원이 거의 없었고 대형강의실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와같은 효과는 거의 없다. 학부제로 통합된 후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학생들 사이의 상호 친목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와 같이 강의마다 같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가 없으므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는 불평이 가장 심하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친구를 사귀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대학생쯤 되면 학생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의 입시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통합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통합시 생기는 여러가지의 장단점은 대학경영의 합리화와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본 장단점들이다. 이들 장단점이 국가, 대학, 학과, 교수 및 학생 각각의 개별적인 이익만을 고려할 때 각 단체와 개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1>을 만들어 보았다.

표 1에서 보듯이 유사학과를 통합함으로써 국가, 대학, 학과,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교수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교수들이 자발적인 통합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 3과는 위에서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의 입장에서는 3과의 통합이 교육 및 연구에 유익함을 알고 통합을 추진하여 온 것이다. 다행히 전기 3과의 통합이 촉매가 되어 최근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대학경영의 합리화와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학부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도 관련법규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다른 대학에서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권장아래 유사학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대학들이 획일적으로 유사학과들을 통합하고, 또 교육부에서 이를 권장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면에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자기대학의 특성에 맞게 유사학과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세분된 학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과과정등만 효율적으로 함께 운영하든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로서 대학원중심체제로 가면서 대학원생의 수가 많은 대학들은 유사학과들의 통합이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 반면, 실무중심 대학이나 대학원생의 수가 적고 학생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들에서는 세분화된 특성학과들을 그대로 두고 교과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산업체 소요인력의 적절한 공급면에서 국가경제에 더 유익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학부제를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점들과 이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알아본다.

학부제 - 그 장점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표 1. 학과통합이 주는 영향

++ 직접이익
+ 간접이익
• 무관
- 간접불이익
-- 직접불이익

번호	내용	대학, 국가 입장	학과입장	학생입장	교수 개인 입장		
1	대외경쟁력 제고 (MIT, 과학원 등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시 일정규모시설, 학생, 연구인력확보) 기업, 정부 영향력 행사	++	++	+	+		
2	교과과정 통합운영으로 학생 수강기회부여	+	+	++	•		
3	학생 취직시 융통성	+	+	++	•		
4	특정분야에서 학생들의 기술 습득 및 취업	--	--	--	•		
5	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시설 유지가 능(예 : 대형강의실, 도서실, 행정실 등)	++	++	+	+		
6	교과과정 통합운영으로 인한 강의부담 경감 (이로 인한 연구시간 확보)	•	+	•	++		
7	비슷한 연구분야의 교수 집중화로 인한 연구 질 제고(선언의 경쟁)	++	++	+	--		
8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가능성 제공	++	++	•	+		
9	통합으로 인한 보다 많은 연구분야나 첨단분 야 수용 가능	++	++	+	•		
10	행정실 통합으로 인한 행정인력 전문화 (회계, 출판, 학사관리 분업 가능)	+	++	•	•		
11	기존연구소(반도체, 자동화, 기초전력, 컴퓨 터, 뉴미디어)의 연계로 인한 효율증대	+	+	+	•		
12	특정분야 집중 육성 가능 (예 : 로봇, 전력 등)	-	--	•	-		
13	학생간의 친목, 교제	•	•	-	•		
14	학생지도 교육 관리	-	--	--	-		
15	교수의 정책 결정 참여 가능성 (인사권, 수업시간스케줄)	•	•	•	--		
총계	15항목	++	5	6	2	1	14
		+	4	4	5	3	16
		•	3	2	5	7	17
		-	2	0	1	2	5
		--	1	3	2	2	8

3. 학과통합에서 생긴 문제점들과 해결방안

통합당시 학부를 운영하기 위한 내규와 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각 학과에서 나온 3명씩의 대표로 구성된 학부추진 실무위원회와 전체교수회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내규와 세칙이 정해진 후에는 이에 따라 학부가 운영되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3개의 학과가 합쳐지면서 예상대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 대학당국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음으로 인한 학부운영상의 문제, 교과과정 통합 문제, 교수들의 담당과목 결정문제, 학부명칭 결정문제, 교수충원시 채용분야의 결정 문제, 학부와 기존 동창회와의 관계등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그런대로 전체교수회의의 합의를 거쳐 잘 풀어나갔으며, 현재까지 큰 말썽없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들이 해결되어진 과정을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3.1. 학부운영상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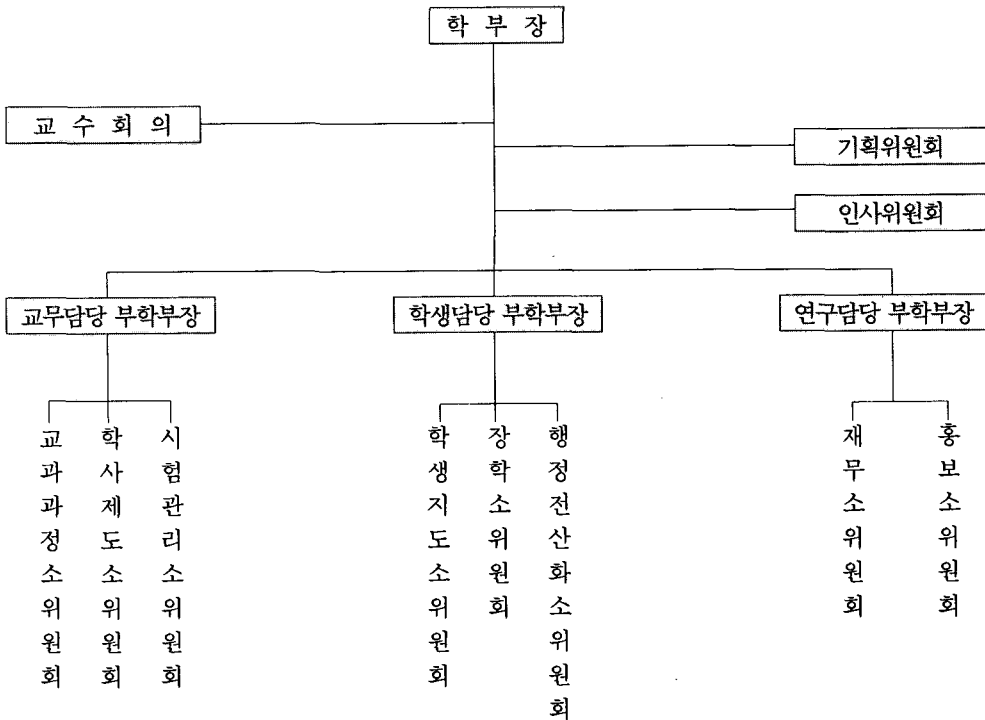
92학년도 신입생을 통합모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통합으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대학설치령이나 학칙의 뒷받침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이를 위하여 전기 3과 전체교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학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규와 세칙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의 제정, 교수의 강의담당과목 결정, 신규교수 채용 등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였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교수회의의 의결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교수들이 교수회의의 결정을 따라 주어서 운영상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기공학부의 내규에 있는 학부조직은 표 2와 같으며, 내규개정을 제외한 학부의 모든 주요결정은 기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초기의 기획위원회는 내규에 명시된 6개의 전문분야(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전기에너지 시스템, 전자물리 및 레이저, 전파 및 정보통신, 제어계측 및 자동화, 컴퓨터 및 고집적 시스템)에 소속된 교수들이 각 분야마다 1명씩을 선출하여 선출된 6명과 당연직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와같이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실제로 학부의 주요안건을 의결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부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야 할 기획위원회가 마치 6개의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6개의 세분된 학과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각 위원은 자기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이 되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많은 교수들이 인식하고 추후 내규를 개정하게 되었다.

현재는 교수들이 전문분야에 소속되는 제도를 없애고, 기획위원도 전체교수회의에서 선출하고 있다. 또한 학부조직 및 운영을 위한 내규 이외에도 여러가지 운영세칙이 만들어졌으며, 이들의 예를 들면 기획위원회세칙, 인사위원회세칙, 전임교수승진자격요건세칙, 전임교수신규임용세칙, 박사학위심사자격에 관한 세칙, 간접연구비납부세칙, 대학원 석·박사과정학생선발세칙 등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수승진과 박사학위취득자격요건을 정하는 세칙에서는 기존의 대학규정보다 그 조건들이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가 다행히 공과대학내에서는 1994년 3월부터 학부장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대학본부에서도 지난 10월부터 기존학과의 학과장이외에 학부를 총괄하는 학부장의 지위를 인정하기 시작함으로써, 학부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표 2 전기공학부의 학부조직



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3.2 학사과정 교과과정의 통합과 교수의 강의담당 과목 결정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체제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학사과정 학생의 70% 정도가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으로 예상하고 교과과정 통합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였다. 이 원칙에 의하면 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기초과목(수학, 물리학 등)을 중요시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공기초를 고르게 수강하게 함으로써 대학원 진학시 자기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대학원에서 자기 전공분야와 인접한 분야와의 공동연구가 쉽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체 전문분야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교과과정을 편성했으나 전공기초과목을 고르게 수강하도록 하다 보니 필수과목수가 학교전체의 평균치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각 교수들 본인이 속한 분야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생겨났으나, 통합 후 현재에는 자기가 속한 분야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교수개인의 연구내용과 실적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필수과목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전공선택 과목에서는 6개의 전문분야별로 비슷한 수의

과목을 학기마다 제공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학생들이 이들 전문분야에서 고르게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권장하였다.

학사과정에서 교수들의 강의담당과목은 모든 교수가 학사과정의 교육에 고르게 참여하여 학사과정의 교육에서 생기는 강의 부담을 나눈다는 원칙아래 정했으며, 현재까지 3년동안 별문제없이 학사과정과목의 강의담당교수를 배정해 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학사과정 교과목을 세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즉 순수 서어비스 과목(공학수학, 컴퓨터프로그래밍, 전기전자공학개론 등), 2학년 전과정과 3학년 1학기까지의 전공성격의 기초과목(회로이론, 전자기, 전자회로, 신호 및 시스템 등), 그리고 3학년 2학기과 4학년 전과정의 전공과목의 세그룹이다. 각 교수마다 각 교과목 그룹에서 본인이 강의하기를 바라는 4과목을 택하고, 그 우선순위를 적어낸 다음, 가능하면 서열에 따라 차례로 각 교수의 강의담당 과목을 학기별로 정하였다. 이 때 향후 3년간 적용될 각 과목의 담당교수표를 미리 만들어서 모든 교수들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경우 매학기마다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또 각 교수마다 그 교수가 지난 3년간 강의한 과목과 앞으로 3년간 강의할 과목의 표를 만들어서 모든 교수가 학사과정의 강의 부담을 고르게 나누어 가짐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한 교수가 어느 한 과목을 강의하기 시작하면 3년간 계속하고, 3년 이후에는 다른 교수가 그 과목을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3 교수총원시 채용분야의 결정

통합할 때 생기는 가장 민감한 문제중의 하나는 전공분야별로 교수정원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수정원이 86명 정도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통합당



시 38명, 현재 44명), 통합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학부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안한 6개 분야별 교수정원을 전체교수회의가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였다. 통합후의 교수정원에 대한 각 전문분야별 지분을 결정하면,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분야와 6개 전문분야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인접분야의 교수총원이 어려워질 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통합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교수 정원의 배분이 합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많은 교수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통합을 먼저 이루기 위하여 교수회의에서 일단 분야별 교수정원을 결정하



근래에 와서 많은 교수들이 세분된 학과중심체제의 단점을 인식하고, 유사학문 분야의 학과들을 하나의 학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행 학과중심 지원체제 아래에서는 통합으로 생기는 재정 및 인력자원에서의 불이익과 교수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통합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 된 것이다. 통합후 전공분야의 크고 작음이 교수 개인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학부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학문분야를 포함한 주요 분야의 우수교수를 확보하는 것임을 모든 교수가 느끼게 되었다. 이에따라 문제가 있던 기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규를 신속히 개정했듯이 전체교수회의에서 통합당시의 분야별 교수정원에 관한 합의사항을 모두 백지화하고, 현재는 앞으로의 교수채용분야는 학부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단 통합후 처음 배정되는 12명의 교수자리에 대해서는 6개 분야에서 2명씩 채용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기

로 하였다.

3.4 비 인기 주요분야의 육성과 대학원 지도교수 결정

신입생을 통합모집하고 졸업시까지 전공별로 학생들을 나누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전기 3과를 통합하면서 생긴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인기분야로 몰리면서 비인기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질지도 모르는 전공분야 학생수의 불균형 분포현상이다.

이와같은 불균형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좋게 평가할 수도 있다. 즉 인기분야란 사회의 수요가 많은 분야일 것이라는 가정

을 하면,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학생이 몰리는 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의 인력수급이 원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합이 가져오는 좋은 효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비인기분야 일지라도 서울대학교 입장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주요분야는 반드시 육성하여야 한다는데 대부분 교수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하여 주요 비인기분야의 육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세뇌 보았다. 즉 주요분야마다 적정수의 교수를 확보케하고, 이 분야에서 연구할 적정수의 대학원생을 해마다 뽑게 함으로써 그 분야의 육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적정수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주어진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결과를 보이면, 학사과정 학생들의 그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비인기 주요분야에 대한 적정수의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학부의 정책으로 결정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적정수의 우수 대학원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교수들이 이 문제는 대학원생 선발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기공학부에서는 1995년 1학기 말부터 1차로 석사과정 대학원생 정원의 1/2을 무시험으로 뽑게 되면,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학생의 최소 자격요건을 교수회의에서 결정하고, 이 최소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각 교수가 2명의 학생을 교수재량권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기분야보다는 학생의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우수 대학원생을 비인기분야에서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외에 나머지 1/2의 석사정원은 2학기말에 필답 및 구술고사를 통하여 우수학생을 선

발하여 학부의 내규에 따라 지도교수를 정하게 될 것이다.

3.5 학부의 명칭

모든 조직에서 조직을 대표하는 명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이의 결정은 각 구성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92년도에 신입생을 통합모집할 때 대학본부는 전기 3과와 상의도 없이 신입생모집단위의 이름을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전기 3과 교수회의에서도 3과의 이름이 모두 들어 있는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이란 이름을 당분간(3년정도) 통합학과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학부에 대한 대학당국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때쯤 다시 교수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학부이름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신입생을 통합모집한지 거의 3년이 지난 1994년 초부터 대학내에서 학부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교육부에서도 통합에 의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음을 알고, 1994년 8월말에 학부이름을 결정하기 위한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투표로 학부의 이름을 전기공학부로 정하였다. 학부이름에 대한 여러가지의 안이 제시되었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제일 길이가 짧은 이름을 택하게 되었다. 학부의 명칭결정은 중요한 안전이므로 교수회의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기로 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번의 투표를 거치는 진통을 겪었다.

3.6 동창회와의 관계

통합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동창회원들은 졸업한 학과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합시 각 학과의 동창회에 통합에 관한 찬반의견을 묻지 않았다.

통합된 후 학과별로 동창회에 통합사실을 알렸다. 학부의 입장에서는 동창회도 통합되어 학부의 발전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였으면 한다. 현재 동창회의 통합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기 3과에서는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대학원 중심체제로 가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사학과를 통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교수들의 공감아래, 대학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통합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모든 교수들이 통합에 따른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로 독립되어 있던 조직들이 외부로부터의 강제성이나 뚜렷한 인센티브도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스스로 통합한 예는 드물며 이와같은 면에서 전기 3과의 교수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얻은 경험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 생각되며, 유사학과 통합을 고려하는 여러 학과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학과의 통합이 대학의 발

전에 좋고 나쁨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수가 많고, 우수한 학생들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는 통합이 학교 발전에 유익하지만, 각 대학은 자기 나름대로 학부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학부제의 추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진하더라도 그 대학의 발전에 유리한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부제 추진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신입생을 통합모집하면서도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므로 학부운영을 3과 교수회의에서 만든 내규에 의해 진행하고 있던 때의 일이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학부와 학부의 교수회의는 학교내에서 임의단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입생을 통합모집하던 당시, 통합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상의하러 대학본부에 가서는 농담조로 “임의단체”가 찾아 왔다고 했다. 그러자 그 당시 법대 소속이었던 교무처장은 “임의단체”에게는 집행한 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따르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않는 “유령단체”(법에서는 유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로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가로서의 충고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유령단체”인 것처럼 처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글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인 10월 19일, 대학본부로부터 총장명의로 학부장 임명장이 날라와서, 이제는 더이상 자유로운 “유령단체”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